

한국지역 사회 생활과학회지
2003. Vol. 14, No. 1, 97-105

연구논문

6, 7차 교육과정 중 가정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성교육의 비교*

Comparison of Sexuality Education of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 · Home Economics
in 6th, 7th Middle School Curriculum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숙자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Univ. of Seowon
Cho, Sook Ja

〈목

- | | |
|--------------------|-------------------------------------|
| I. 서론 | IV. 가정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에 관한 비교 |
| II. 연구 방법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III. 가정과 기술·가정의 비교 | |

차〉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tents of sexuality education in the 6th Home Economics 1 and in the 7th Technology · Home Economics 1 of Middle school curriculum by comparing those two text books. The result of the study was that: 1) the 7th Technology · Home Economics 1 has more sexuality education contents than in the 6th; 2) the 7th Technology · Home Economics 1 used much more vivid and realistic pictures to catch students' attention and bring educational effect; 3) the 7th Technology · Home Economics 1 included more detailed information for the young students such

* 본 연구는 2001년도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s pregnancy, birth control, masturbation, artificial abortion, and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than the 6th; 4) although the 7th Technology · Home Economics 1 showed more developed contents for the sexuality education, it had still only theory based information that lost students' attention on this important issue.

Key words: sexuality education, Home Economics1, technology · Home Economics1, middle school curriculum

I. 서론

제 6차 교육과정은 시대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 개인의 필요와 사회요구의 변화, 가정학의 학문적 발전과 동향 등을 반영하는 한편 「가정」을 최초로 남녀가 이수하게 된 점이 중요하며 1992년에 출발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시행하게 되었다(교육부 1997).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국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교육부 1998).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학습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나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극도로 분화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감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성의 발달과 성적 자아 완성은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이며 사람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올바르고 행복한 성생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초가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의 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외숙(2000)은 실제로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에서 1984년부터 1998년까지 15년간의 상담 내용 중에서 성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의 69.87%였다고 하였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각종 성문제와 미혼모 문제, 성의 범죄화 등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명화(2001: 2)는 개방화되는 성의식과 함께 각종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들의 무차별적 공격성 광

고 등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 지식은 '성에 대한 풍문, 음담패설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수정, 배란, 임신, 출산이 자신에게 지나는 의미, 심지어 자신의 생식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되었으며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가정1에, 7차에서는 기술 · 가정1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두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제 6차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과 7차 실과(기술 · 가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따라 발행된 교육부 검정 교과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성교육 부분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중학교 1학년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검정 중학교 가정1 교과서 8종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 · 가정1 교과서 8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III. 가정과 기술·가정의 비교

1. 제 6차 가정과 교과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가정과 가사를 통합하여 가정으로 통일하고 우리나라 실업 가정교육과정 상 처음으로 남녀 학생 모두에게 이수하게 하였다. 중학교 가정교과의 학생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변화 등에 관하여 이해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제6차 가정과교과 내용체계 중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에 편제되어 있으며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대단원인 나와 가정 생활 아래 중단원인 청소년기의 발달의 특성에서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교육부 1993).

2. 제 7차 기술·가정과 교과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가정과 교과는 6차 교육과정의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를 통합하여 기술·가정으로 하여 국민 공통 기본교과로서 7~10학년까지 남녀 학생 모두가 이수하게 되었다. 성교육에 관한 내용은 7학년인 중학교 1학년의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의 대단원인 나와 가족의 이해 아래 중단원인 청소년기의 발달의 특성과 성과 이성 교제 두 소단원에서 학습하도록 되어있다(교육부 1998). 성교육학습에 있어서 제6차 가정과 교육과정과 제7차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상의 차이는 제6차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의 특성의 한 단원에서만 다루게 되어 있었으나 제7차의 내용체계에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성과 이성 교제 두 단원에서 다루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IV. 가정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에 관한 비교

1. 단원 구성비교

제 6차 교육과정의 가정 교과 내용 편제에 따라서 성교육 부분은 가정 1에서 대단원인 나와 가정생활 [또는 가정과 나(윤인경 등 1999), 우리들과 가정생활(조규화 등 1999)] 아래 중단원인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또는 특징, 청소년기와 나, 우리들의 성장 발달)에 들어 있었다. 중단원인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의 소단원으로서 성화경 등(1999)은 1. 신체 발달 2. 지적 발달 3. 자아 정체감 발달 4. 성 역할의 발달 5. 도덕성의 발달 6. 진로와 직업 선택으로 구성하여 그 내용이 제일 많았다. 윤인경 등(1999)은 중단원인 청소년기와 나 아래 소단원으로 (1) 청소년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는 (2)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은 어떠한가 (3)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은 어떠한가로 구성하였다. 이기춘 등(1999)은 (1) 청소년기와 사춘기 (2) 신체적 발달 (3) 심리적 발달 (4) 사회적 발달 (5) 청소년과 성 등의 25면으로 되어 있었다. 이순원 등(1999)은 (1) 신체적 발달 (2) 청소년과 성 (3) 사회적 발달로, 이승신 등(1999)은 (1) 신체적 발달 (2) 심리적 발달 (3) 청소년과 성으로 21면으로 구성하였다. 임원자 등(1999)은 중단원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3.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단원 아래 (1) 발달과 발달 단계 (2) 신체적 성장 (3) 사고의 발달 (4) 자아 정체감과 성 역할의 발달 (5) 직업에 대한 준비 (6) 이성과의 사귐 (7) 일탈 행위로 11면에 걸쳐 구성하였고 4. 청소년과 성 단원 아래 (1) 성적 성숙 (2) 정자와 난자 (3) 임신 (4) 순결 (5) 성윤리 등으로 성교육 부분을 세분하였다. 조규화 등(1999)은 대단원인 우리들과 가정생활과 관련지어 중단원도 우리들의 성장 발달이라 하였고 소단원으로 (1) 청소년기 (2) 신체적 성장 발달 (3) 사회 심리적 성장 발달 (4) 성에 대한 이해로 구성하였다. 최영희

등(1999)은 1.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2. 청소년의 인지 발달 3.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4.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진로 의식의 발달 5. 청소년의 성의 발달로 20면으로 구성하여 중 단원부터 그 명칭이 조금씩 달랐으며 소단원은 중단원 보다 훨씬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성교육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다룬 교과서의 구성 면수는 조규화 등(1999)은 15면으로 구성하였고 성화경 등(1999)은 27면으로 제일 많은 면수였으며 평균 19면이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1의 성교육 부분은 모두 대단원 나와 가족의 이해 아래 두 개의 중단원으로 1.청소년의 특성 2. 성과 이성교제로 하여 6차 교과서에서 보다 한 개의 중단원을 더 구성하여 성교육 부분을 강조 한 것이 6차와 차이점 이였다. 기술·가정1의 중단원의 명칭으로 5종의 교과서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하였으나 송해균 등(2001)은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과 성으로 하였고 이승신 등(2001)은 청소년기의 이해와 발달 특성으로, 정성봉 등(2001)은 우리들의 성장 발달로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 중단원은 제7차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따라서 5종의 교과서는 성과 이성교제로 하였다. 그러나 김판우 등(2001)은 청소년의 성과 우정, 송해균 등(2001)은 청소년기의 심리적·사회적 발달로 이승신 등(2001)은 청소년의 성과 이성교제로 단원명을 변화 있게 하였다.

2. 단원 내용 비교

중단원에서 8종의 교과서 전부가 공통적으로 신체 발달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성화경 등(1999)은 성장 급등과 함께 성적 성숙에 대한 내용으로 내분비선의 변화와 성징의 출현, 성숙의 가속화 현상,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외모, 체중이상, 비만, 거식증과 탐식증, 조숙과 만숙, 이성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혼전 성에 대한 태도, 자위행위, 성병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윤인경 등(1999)은 급성장의 개인차, 얼굴과 체형, 내장 기관, 성적 성숙, 남자의 성적성숙, 여자의 성적성숙, 청소년기의 남녀의 생리적 변화, 신체적 생리적 발달의 의미, 남녀의 조숙과 만숙, 자아개념, 성 역할, 이성 교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기춘 등(1999)은 내분비선의 발달과 뇌하수체와 생식선의 분비의 변화, 성적 성숙, 성장의 개인차, 자아개념, 성 역할, 이성 교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순원 등(1999)은 성장급등, 2차 성징의 출현, 생식기능, 수정과 임신,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이성 교제의 문제, 자아의식의 발달 등을 다루었다. 이승신 등(1999)은 성장 급등을 설명하였으나 임원자 등(1999)은 성장 급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조규화 등(1999)은 제 2의 성장 급등기, 청소년 시기의 구분, 사춘기의 변화, 청소년기의 중요성, 개인차, 2차 성징의 나타남을 다루었다. 최영희 등(1998)은 일반적인 신체의 변화, 2차 성징의 발현, 남녀의 성차, 생명의 탄생, 부모 됨의 책임과 의무, 이성 간의 교우 관계 등을 다루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의 중요한 특징인 신장과 체중 외에 신체의 다른 변화에 대한 내용은 저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있었다. 이승신 등(1999)은 성의 의미라는 학습 주제에 명확한 의미가 없어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정체감 형성에 분명한 의미의 전달이 없었다.

한편 저자들은 성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그림을 활용하였다. 임원자 등(1999)과 최영희 등(1998)의 남녀의 생식기에 대한 그림은 서로 비슷한 크기였으나 표현 방법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드로잉 식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었다. 임신이 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은 임원자 등(1999)의 정자의 이동과 수정에 대한 그림이 크기가 9×5.5cm로서 크고 정자가 수란관으로 들어와서 수정이 된 후 다시 수정란이 자궁으로 가서 착상하는 과정이 화살표로서 표시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영희 등(1998)은 생명의 탄생에서 난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정자와, 정자와 난자의 핵융합을 한 수정란의 그림만을 실었다. 이기춘 등(1999)은 기초체온에 따른 난소의 변화에서 월경 주기와 체온 변화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같은 내용에서 임원자 등(1999)의 그림은 크기도 크고 임신이 가능한 시기와 난자 및 자궁의 변화까지 나타나 있어 이를 자료로 임신과 피임의 원리를 교사가 설명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었다. 이순원 등(1999)은 2차 성징의 발현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다운 체격, 남성다운 체격으로 나누어서 각종 성호르몬의 작용에 따라 신체적 특징이 생기는 것을 그림과 함께 나타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승신 등(1999)은 청소년기 남녀의 2차 성징의 제목 아래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반신 그림을 실은 옆에 2차 성징을 서술 식으로 요약하였으며 시각적 효과는 이순원 등(1999)이 그림을 활용한 것이 더 컸다. 최영희 등(1998: 19)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학습주제에서 '정자와 난자는 여성의 생식기관인 수란관 속에서 만나 수정을 한다'라고 그림 없이 서술식으로 설명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성교육 교과서로서는 수정 과정에 대한 그림을 실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정체감과 성역할의 발달에 있어서는 임원자 등(1999)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점을 장점으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었다. 이순원 등(1999)과 최영희 등(1998)도 자아의식의 발달을 다루었으나 이승신 등(1999)은 그 내용이 없었다.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1은 6차의 가정1과 비교하면 우선 외관상으로 책이 크고 전면의 색을 천연색을 사용하였으며 디자인 면에서 훨씬 세련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효과적이었다. 김판욱 등(2001)의 수정과 착상에 대한 그림은 9.5×5cm로 배란, 난자, 나팔관, 수정, 자궁에 자리 잡은 수정(착상)을 표시하여

봉공진 등(2001)의 수정과 착상의 내용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또한 이기춘 등(1999)의 같은 내용에 대한 그림은 4×5cm로 검정색으로 인쇄로 된 것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2.4배정도 클 뿐 아니라 색상이 인체의 내부 점막 색과 같은 색으로 되어 있어 훨씬 인체와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 흥미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학습 내용에 용어해설과 보충 학습으로 원하지 않는 10대 임신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피임방법, 무분별한 성 행동의 자제, 성에 관한 왜곡된 정보인 음란물에 대한 문제점, 이성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절 6항을 만화식 그림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돋게 한 점이 6차의 교과서와 차이점이였다. 봉공진 등(2001)은 용어 해설과 함께 조각 사진을 이용하여 남녀의 2차 성징의 차이와 공통점을 명확하게 표시한 점은 그 크기와 아이디어가 좋았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 생식기의 청결 방법 등에 대하여 전면 크기의 그림을 사용하였으며 김판욱 등(2001)의 그림보다 색과 선명도가 훨씬 좋았고 그 크기도 약 1.5~2배 정도 더 크고 자세해서 학습 효과 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환과 부고환을 같은 부분으로 표시하는 잘못이 있어 수정 할 것을 출판사에 건의하였다. 성교육에 대한 조숙자(2000)의 연구에서는 14.1%의 학생만이 교과서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피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기를 40.3%의 학생들이 원했다.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10대 임신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성질환인 매독과 에이즈 사진을 실어 경각심을 가지게 한 것은 바람직하였다. 성화경 등(2001)은 청소년기의 부적응의 학습 주제로 불안감과, 우울증, 약물남용, 흡연, 음주,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 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성 행동과 관련된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임신이 되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증후와 증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수록하여

알 수 있게 한 점이 유일했으며 청소년들의 임신이 사회 문제가 되는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효과적이라 하겠다. 또한 임신의 과정에 대한 그림은 8×8cm 크기로 같은 내용의 그림 중에서 가장 컸으며 가장 작은 그림을 사용한 이상혁 등(2001)의 그림보다 7.3~14.6배가 컸으므로 시각적인 효과가 좋았다. 교과서의 공간을 줄이기 위하여 그림이 대칭일 경우 반쪽만 그리는 방법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겠다. 성적욕구의 자체가능성과 자위행위의 긍정적 측면, 또한 십대 임신의 문제점과 함께 4종류의 피임 방법을 그림과 함께 제시한 점도 현실성이 있어 좋은 성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성폭력 예방책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실었다. 또한 학생들의 고민 거리를 털어놓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의 기회를 준 것과 더불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 상담을 받는 곳을 지역을 포함하여 5곳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 점도 좋은 방법으로 6차에서는 없었던 방법이었으며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교육방법으로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송해균 등(2001)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 성장급등, 아름다운 성, 건강한 삶, 성충동과 욕구 조절, 음란 정보의 영향, 성충동의 승화, 임신의 성립,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남녀의 생식 기관의 구조에서 그림과 함께 기능에 대한 설명과 용어 해설을 하였다. 송해균 등의 그림은 이상혁 등(2001)의 그림보다는 크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으나, 김판옥 등(2001), 봉공진 등(2001), 성화경 등(2001)의 같은 내용의 그림들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약 1/2정도 작았으며 색상도 붉은 색 계통의 단색을 농담으로 만 표시하여 시각적 효과가 다소 떨어지게 보였다. 수행 활동으로 성에 대한 정보 탐색과 보충 학습으로 청소년기의 성 충동 자위행위는 성적 긴장감을 스스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경험하

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한 것은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들과 차이점이였다. 심화 학습으로 월경 주기를 이용한 피임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월경 주기를 이용한 피임법은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임신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적당한 방법이 아닐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봉구 등(2001)은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청소년과 성, 사랑과 성,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 성장 급등, 2차 성징, 신체 발달과정,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남녀의 생식 기관, 발기, 사정, 처녀막, 처녀성 등에 대한 내용이 용어 해설과 함께 있었다. 성기관에 대한 그림은 천연색 사진과 흡사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실물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임신이 되는 과정의 그림은 난관에서 정자와 만나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성화경 등(2001), 송해균 등(2001), 김판옥 등(2001)의 그 과정을 화살표로써 나타낸 이를 그림보다 수정과 착상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었다. 또한 적성과 능력에 따른 남녀의 역할 수행, 성 역할의 변화와 함께 신문열기로 신문 활용학습(NIE)을 하는 것이 유일했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http://www.kyci.or.kr> 사이버 상담 주소와 성 정보 마당 이용하기, 아름다운 우리 성 이야기 인터넷 사이트인 <http://www.ausung.or.kr> 을 올려서 학생들의 상담을 용이하게 도와주려 한점과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설명 그림, 성폭력 상담, 생활 속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서술하고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소개 등도 7차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발전적이며 현실적인 교육방법이였다. 피임방법으로 먹는 피임약, 콘돔, 페미돔, 월경 주기법, 기초체온법, 기타의 방법으로 자궁 내 장치 영구 불임 수술 등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자극하는 음란물의 문제성, 성에대한 책임과 의무, 성

의식, 성충동의 조절, 몽정, 자위행위, 순결의 의미 등의 내용이 있었으며, 그림은 만화식으로 된 것이 많아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았다. 이상혁 등(2001)은 성장급등과 각 성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되어 있어 좋았으나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과 수정과 착상에 대한 그림은 3×3cm정도로 8종의 교과서 중 가장 작아서 각 기관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질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는 따돌림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학교사회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오해를 있어서 성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였으며 만화로 여는 생각 등으로 만화를 이용하였다. 이승신 등(2001)은 성장급등 현상, 2차 성징과 성적 성숙, 건강한 청소년의 성 생리, 발기, 몽정을 처리하는 방법, 사정, 정서적 불안정, 도덕성의 발달 특성, 청소년의 성문제, 음란물의 유해성, 임신, 성병, 에이즈 등에 대한 주의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여성의 생식 기관의 그림은 5×3.2cm로 남성의 생식기관 그림보다는 크고 자세하게 되어있었고 수정과 착상의 그림은 6.5×3.5cm로 천연색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성의 생식기관의 그림은 3.2×3.5cm로 너무 작아서 성기관의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임신과 피임을 따로 나누어 다룬 것이 특징이었으며 피임 방법으로 월경 주기법, 기초체온법, 먹는 피임약, 콘돔, 자궁 내 기구 장치 등을 들었고 월경 주기법을 이용한 피임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한 실체적인 콘돔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서 불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전문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나 청소년에 관한 사이트 <http://www.youth.co.kr>를 소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성봉 등(2001)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지

적발달, 여성의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남성의 생식기관의 그림은 5×5cm로 전립선까지 표시하였고 부고환, 정낭 등의 모양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었다. 임신이 되는 과정은 8.5×4.5cm로 크고 자세하게 되어 있었고 수정란이 착상되는 과정은 있었으나 정자와 난자가 수정 되는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림만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정 장면의 사진은 4×5cm로 잘 나타내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월경 주기와 임신에 대한 것을 월경 주기, 임신 기간, 출산 예정일 등에 대한 것은 실었으나 피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각종 음란물, 왜곡된 성 정보, 성문제와 10대 임신의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피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피임법,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화학적인 방법, 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이론적이며 피상적 설명으로 실질적이지 못하였다. 성폭력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례 네 개를 들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으나 상담기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가정과 교육과정은 그 동안 시대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 교육사조의 변화, 학문의 동향, 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되어왔으며 6차의 중학교 가정과 교육 과정 개정1 교과서 8종과 7차의 중학교 기술·가정1의 교과서 8종 성교육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6차 교육과정의 개정1 교과서는 4개영역 4개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자는 5~8명으로 평균 6.3명이었고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15면~27면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균 19면이였다.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1 교과서는 2개영역 5개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자는 6~12명으로 평균 8.5명이었고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17~26면 이었고 평균 20면이였다.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

정1의 성교육 부분은 6차의 가정1보다 학습 내용 면수의 편차가 적었으며 평균 1면이 더 많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1의 성교육 부분은 교과서의 크기가 6차는 148×210mm였으며 7차 교과서는 188×257mm로서 1.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양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6차의 가정1 교과서에서는 주로 사진이나 그림들을 사용하였고 만화를 이용한 것은 1종 뿐이었으나, 7차의 기술·가정1은 8종 모두 그림과 사진 만화를 이용하였다. 7차의 기술·가정1은 8종 모두 전면의 색이 천연색을 이용하였고 디자인 면에서 훨씬 세련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6차 교과서의 그림은 검정색으로 인쇄되었으나 7차의 기술·가정1에서는 색상이 훨씬 인체와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그림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림 활용에 있어서 그 크기나 채도에 따른 시각적 교육 효과를 세심하게 연구하여 범람하는 음란물과 차별성 있는 신뢰할만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교육 내용에 있어서 6,7차 교과서의 공통된 부분은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자아 정체감의 발달 등에 관한 부분이었다. 임신에 대한 부분은 6차의 가정1은 5종에서 다루었으나 7차의 기술·가정1은 8종 모두 다루었으며 피임에 관한 것은 6차의 가정1은 전면 다루지 않았으나 7차의 기술·가정1은 6종에서 다루었다. 7차의 기술·가정1은 이성 교제에서 지켜야 할 예의, 자위행위, 인공임신 중절 문제, 성인성 질환, 몽정, 사정,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의 내용이 6차의 가정1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수용적이고 열려진 자세로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다룬 것이 많이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겠으며 또한 학생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7차의 기술·가정1의 성교육 부분도 성교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가려져 있었으며 이론적으로 수정과 임신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들이 홍수처럼 청소년들을 공격하는 시대에 7차의 기술·가정1은 6차의 가정1 보다는 외적, 내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성교육의 장에서는 여전히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7차의 기술·가정1의 교과서 1종에서는 6차의 가정1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였으며 신문 활용수업(NIE)과 음란물의 유해성,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새롭게 구성되어있는 차이점과 새로운 시대의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3종의 기술·가정1에서 십대 임신문제와 인공임신 문제를 논하고 있으면서 피임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6종의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었고 한 종류의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들의 피임에 관한 내용은 이론적인 것에 머물렀다.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성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교육은 성교, 중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피임방법, 성인성질환의 예방법, 치료법과 아울러 성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더 열린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3).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22- 125.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 36.
교육부(1998).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 [별책10]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판욱·김기수·김종명·강성모·이경근·유효선·장민자·황혜영·이내순(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주) 서울: 지학사.
- 봉공진·정현희·정희자·신희철·양재학·이엄희(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서울: 협설출판사.
- 성화경·김기숙·신화용·이연숙·정옥분·조재순(1999). 중학교 가정1. 서울: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성화경·오명숙·이수희·이연숙·정옥분·조재순·김정순·류장립·김은태·안종현·지용일(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서울: 동화사.
- 송해균·이용환·김용익·류청산·박정숙·전령·김미식·이한규(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서울: 대한교과서 (주).
-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1998). 교육부 고시 제 1997-15 [별책10]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유외숙(2000). 스트레스, 정동성,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성욕구 및 충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윤인경·신상옥·이일하·김양희·안숙자·윤정숙·박선영(1999). 중학교 가정1. 서울: 교학연구사.
- 이기춘·이은영·이경희·옥선화·백희영(1999). 중학교 가정1. 서울: (주) 현대문학.
- 이명화(2001). 청소년 관련 성 범죄, 그 실상과 대책.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 고찰.
http://susaco.kr/susa_restr/susa_data/200009/special/s2.htm
- 이봉구·권영출·송기덕·류길현·한성숙·최민숙·한미철(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서울: (주)금성출판사.
- 이순원·이혜수·김명자·이기영·김대년(1999). 중학교 가정1. 서울: (주) 두산.
- 이상혁·이기훈·이용순·임공희·김성식·이기영·김진수·이은영·성철·김대년·이정원·김유미(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서울: (주)두산.
- 이승신·이정숙·윤명숙·가운제·김혜경(1999). 중학교 가정1. 서울: (주) 천재교육.
- 이승신·윤명숙·조인경·김혜경·백영균·최광현·송영갑·민창기(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서울: (주)천재교육.
- 임원자·유영주·조보희·박명희·구재옥·홍형옥·양일선·조길수(1999). 중학교 가정1 서울: (주) 교문사.
- 조규화·김경아·김영희·맹혜영·문숙재·이전숙·이종미·현온강(1999). 중학교 가정1 서울: 법문사.
- 조숙자·이은영 (2000). 중학교 가정과교육과정 중 성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 발전(서원대학교 교육 연구소), 371-394.
- 정성봉·이상봉·이종성·이창종·이혜자·나현주·모태화·천혜정(2001). 중학교 기술·가정1. 서울: 교학사.
- 최영희·유호선·윤기숙·윤종희·이영호·이정원(1998). 중학교 가정1. 서울:(주) 지학사.